



현도심 기억을 담다  
도시재생 공간 탐색 (6) 김영수도서관

1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마을도서관으로 지역민에게 개방된다.  
2 볼 만한 김영수도서관.  
3 2층 서가에서 아이들이 빌려볼 책을 고르고 있다.  
4 도서관 2층 동물 모양 독서대 너머로 제주목 관아 건물이 보인다.

## 온 힘 다해 한 아이 키우는 도서관으로

아동이 내려앉은 시간, 가방을 뺀 아이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멈췄던 도서관 문이 다시 열리자 아이들도 들뜬 듯 했다. 2층 서가로 향하더니 빌려갈 책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일본으로 건너가 기업인으로 성공한 20회 동문 김영수 선생(작고)이 1968년 어머니의 90회 생일에 맞춰 모교에 신축, 기증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9억원을 들여 기존 도서관에 옛 관사와 창고까지 합쳐 리모델링했고 지난해 5월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시설로 건물 가운데 작은 기와집이 들어앉은 외관에 한옥방, 층층다리, 목관아가 보이는 책틀, 도채비방 등 공간 배치부터 눈길을 끌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도서관의 운영 방식이다. 학교에 조성된 도서관을 기반으로 어른들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제주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제주시민회관 인근 제

정규 수업일엔 북초도서관 저녁과 주말은 마을 도서관 외관만큼 색다른 운영 방식 자원활동가 등 어른 힘 더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

주도서관이 지금의 연삼리로 이전한 뒤 원도심엔 공공도서관 하나 없었다. 학교와 지자체, 지역민이 머리를 맞대 김영수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확장한 이유다. 평일 오후 5시 이전까지는 학교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평일(화요일 휴관) 오후 5-9시, 주말 오전 10-오후 6시에는 마을도서관으로 개방하고 있다. 지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서 대출만 가능하고 주말 운영 등 정상 가동은 11월부터 이루어진다.

김영수도서관에선 아이들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가 가능하다. 예써 독서 활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즐겨도 된다. 유진 김영수도서관 사서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도서관을 문턱없이 드나들다 보면 어느날 '인생 책'을 건질 수 있다. 평일엔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

면서 이 시간에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동네의 초등생 이상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찾아든다. 다만 도서관은 6번 이용도장을 받아야 정회원으로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아이든, 어른이든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깝게 이용하며 마을도서관을 다같이 키워가자는 뜻이다.

도서관은 사서, 활동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매일 상주하며 운영되고 있다. 멀리 구좌읍에 사는 이 들까지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가로 나서서 등 공간을 꾸려가는 이들은 김영수도서관이 지역에 특색있게 뿌리내리고 다른 마을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

김진아 제주도시재생센터 전략 기획팀장은 "단순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아니라 도·교육 행정이 함께 고민해 학교 공간을 지역이 개방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마을도서관을 잘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원도심 학교에서 학생수를 격정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다.

글·사진=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17일 개막한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 고은·김성오·이미선 작가 3인 초대전에서 김성오 작가가 관람객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국기자

## 다 받아주는 제주 자연 있어 눈부신 날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 초대 고은·김성오·이미선 3인전 3인 3색 따스한 색깔 화면 전시는 11월 27일까지 계속

따스한 색깔의 조형언어로 쓸쓸한 이 계절을 나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림전이 있다. 지난 17일 개막한 한라일보 사옥 1층 갤러리 이디(ED, 관장 한미라)의 세 번째 초대전 고은·김성오·이미선 3인전이다.

50대 초반 나이의 세 작가는 비슷한 시기에 미술대학을 다니는 등 동년배와 닮았다. '완결형'이 아니라 조용히 변화를 모색하며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이들은 '가을여행'이란 이름의 이번 초대전을 더 나은 작업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고은 작가는 제주 무인도, 곳자왓을

소재로 장지에 분채로 그린 신작 '바다주기' 연작을 출품했다. '바다주기'는 번다한 우리네 마음을 자연이 다 받아준다는 뜻을 담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제목이다. 고 작가는 "어느날 아침 제 그림을 보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다는 어느 분의 말씀이 저를 일깨워 세운 적이 있다"며 "제가 그림 작업을 하며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듯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림들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작가는 이름을 알린 슬레이트집 소재 '행복한 풍경' 연작도 함께 걸렸다.

"살아있는 한 오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김성오 작가는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을 사용해 '황금정원', '술', '불의 꽃' 등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테두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부터 오름을 오르며 눈앞에 있던 풍경들은 상상력과 이야기가 더해지며 '김성오의 오름'이 되어가고 있

다. 해와 달, 별이 뜬 화산섬 붉은 빛 하늘 아래 오름은 태초의 그것처럼 '민동산'이다. 파도처럼 물결치는 그곳엔 할미꽃, 갈색말, 꿩 등이 노닐고 갈밭을 이용해 표현된 저마다 다른 오름의 층이 바람처럼 흐른다.

'비단에 자연을 그리는 공필화가' 이미선 작가는 색이 물들 듯 채색한 '치유의 정원' 연작을 소개하고 있다. '공을 들어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상을 그리는 기법'인 공필화로 5년째 '치유의 정원'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눈부신 봄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 등의 부제가 달린 작품을 준비했다. '눈부신 봄날'은 코로나 시대를 떠올리며 그렸다. 이 작가는 "지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봄날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시는 11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전선희기자

## 유배지 연인의 사랑 소비 방식 고민을

제주 창작극 '홍윤애의 비가' 시선 바뀌도 지순함에 방점

제주 연극인들이 세 번째 펼쳐놓은 홍윤애 소재 공연이었다. 2018년 초연된 '섬에서 사랑을 찾다'를 유배인 조정철이 아닌 제주 여인 홍윤애를 중심으로 하고 제목을 단 창작극 '홍윤애의 비가'다. 한국연극협회 제주도 지회가 주관한 무대로 초연 당시 원작을 각색해 정민자씨가 연출했고 세이레 등 7개 회원 극단이 참여해 약 100분 동안 공연을 이어갔다.

18일 오후 3시 5분부터 제주아트센

터에서 시작된 공연을 동영상 채널 실시간 중계로 지켜본 '홍윤애의 비가'는 조정철(강상훈), 홍윤애(박은주) 등 주역부터 확 바뀌었다. 조정철이 27세에 제주에 유배되었던 것에 비해 극에선 그보다 나이든 모습으로 등장했다. 홍윤애를 짝사랑하는 강창수(현유상)를 새롭게 탄생시켜 비극의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로 그렸다면 앞선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했던 '아주망 3인방'은 이번엔 사라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홍윤애가 적극적으로 글자를 배우는 등 여성의 한계를 넘으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전작보다 길어진 듯한 고문 장면에서는 자

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의연함을 보여줬다. 1인 2역으로 두 주인공 사이에 낀 딸과의 만남도 담았다.

근래 다소 과다하게 쓰이는 영상 대신에 말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등 담박한 무대 연출이었지만 대극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배 공간만 덜렁한 인상이었다. 홍윤애는 지순한 사랑을 실현한 여인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정철·홍윤애 두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러닝타임 50분가량을 썼다. 비록 유배인이나 명문가 집안의 남자 유배지 연인의 사랑이 슬픈 운명을 맞으리란 건 예견된 일이 아닐까. 제주 소재 연극으로 레퍼토리를 피한다면 홍윤애를 '소비'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한다. 전선희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5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